

# CARE WORK AND THE ECONOMY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1 – 01K

## 한국의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형태 및 돌봄 활동: 2018년 가족돌봄조사자료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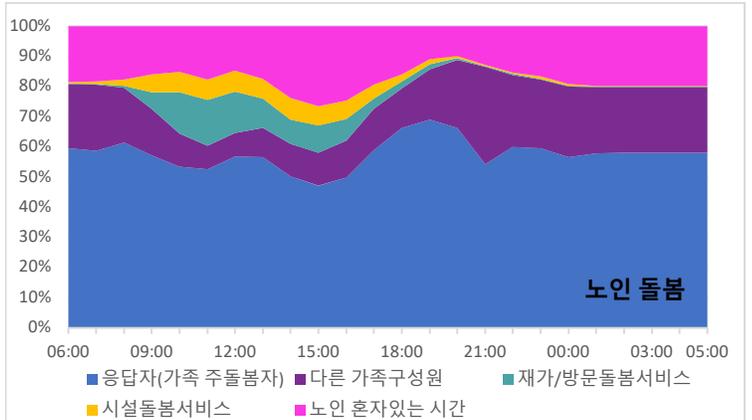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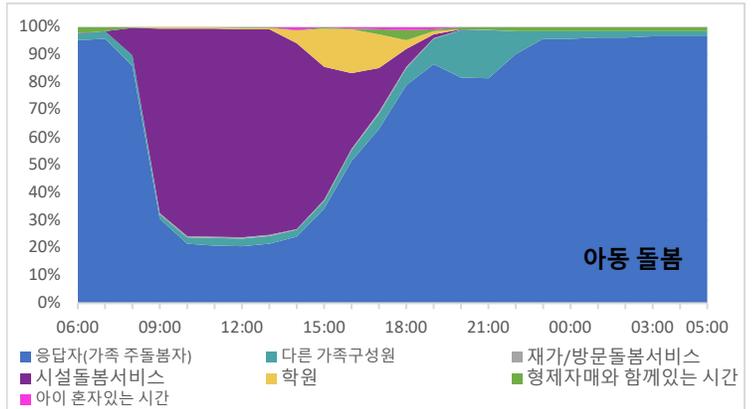
강은혜, 서울대

CWE-GAM Working Paper Series: [21-02](#)

### POLICY HIGHLIGHTS

- 아동의 상당수가 시설 돌봄을 받고 있으나 대략 오후 3시 이후부터 그 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돌봄제공자가 엄마로 대체되고 있음.
- 마찬가지로, 노인 돌봄도 대부분이 다른 가족을 포함해 가족 주돌봄자에게 집중된 모습은 아동과 노인 주돌봄자들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클 것임을 시사함.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보다 공평한 돌봄 부담이 이루어지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제한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및 편성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사회적 돌봄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들이 돌봄과 시장 노동을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나타냄.
- 특히 저조한 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률은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한국의 노인돌봄서비스가 사회적 돌봄으로써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돌봄 수요에 맞춰진 서비스 개발 및 강화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임을 보여줌.
- 가족돌봄자들이 돌봄 노동과 소득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돌봄서비스와 노동시장 간 더욱 긴밀하고 촘촘한 제도적 협력이 중요함.

### 아동과 노인의 하루 돌봄 일과표



### Key Fin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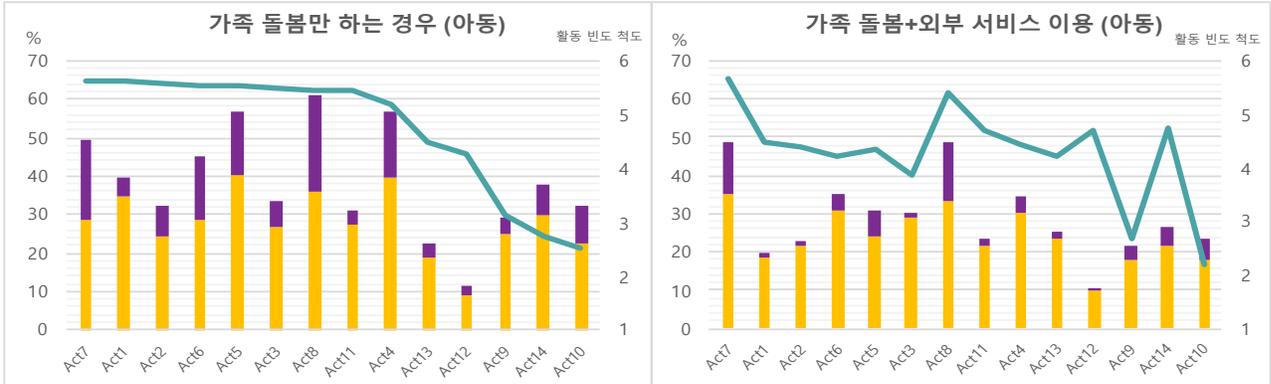
- 아동 돌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78%가 외부 돌봄서비스를 적어도 1개 이상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 돌봄의 경우 약 33%의 가족만이 외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로 장기요양보험 재가돌봄서비스).
- 아동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는 엄마가 직접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자녀가 영아(만 0-2세)일 때 높게 나타나, 한국에서 자녀가 어린 경우 가족 돌봄이 선호되고 있음이 확인됨.
- 노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 이유는 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34.6%), 그리고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20.3%)인 것으로 나타남.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고 돌봄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선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 가족 중 노인을 돌보는 주돌봄자(primary family caregiver)는 며느리가 36.7%로 가장 많았으나, 딸(35%)이 근소한 차이로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이는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족 내 역할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시사함.
- 노인 가족돌봄자는 하루 평균 7.3시간을 노인을 돌보는데 사용했고, 그 배우자는 하루 평균 1.2시간을 사용함. 아동 돌봄의 경우 가족돌봄자(엄마)는 하루 평균 8.1시간을 자녀를 돌보는데 사용한 반면, 배우자인 아빠는 하루 평균 1.8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돌봄과 아동 돌봄 모두에서 주돌봄자와 이들의 배우자 간 돌봄 시간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 모두에서 가장 빈번하게 수행되는 돌봄 활동은 가사노동인 것으로 나타남. 아동 돌봄의 경우 가사노동이 자주 수행하면서 힘든 활동인 것으로, 노인 돌봄의 경우, 화장실 이용 돕기와 씻겨주는 활동들이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보고됨. 외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돌봄 활동의 어려움과 빈도가 아동에서는 감소했지만, 노인에서는 오히려 증가한 형태가 확인됨. 이는 노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은 돌봄의 부담이 더 큰 가족임을 암시함.

# CARE WORK AND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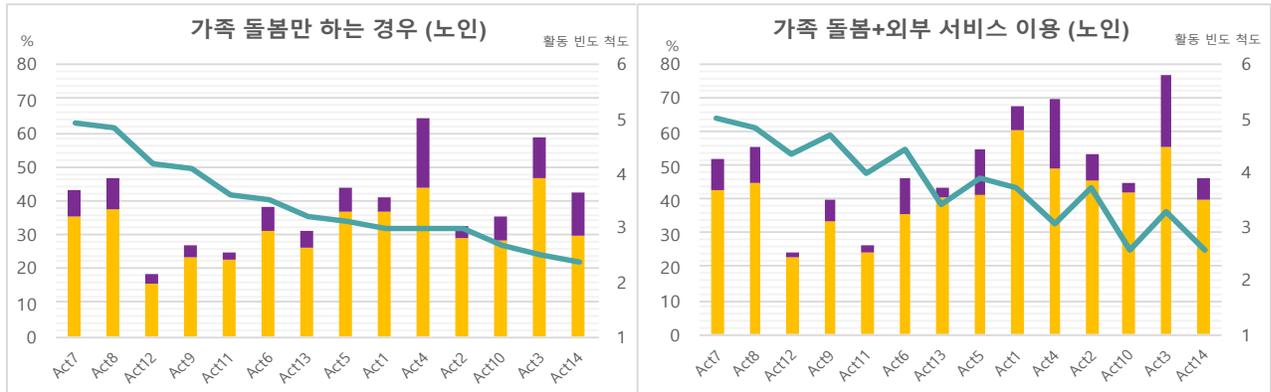
Advancing policy solutions with gender-aware macroeconomic models

POLICY BRIEF | 21 – 01K

## 아동과 노인 돌봄 활동에 따른 수행 빈도 및 어려움 정도



Act1	옷 갈아입는 것 돕기	Act2	씻는 것 돕기	Act3	화장실 사용 돕기/기저귀 갈기
Act4	목욕/샤워 돕기	Act4	목욕/샤워 돕기	Act6	음식 섭취 돕기/분유 먹이기
Act7	식사 준비/설거지	Act8	집안일 하기	Act9	제 시간에 정해진 분량 약 먹는 것 돕기
Act10	병원 데려가기/약 타오기	Act11	실내에서 함께 놀기/대화	Act12	TV/미디어 시청 같이하기
Act13	산책/바깥 활동	Act14	대중교통 이용/픽업 등 이동 관련 돕기		



- \* 바(bar)는 각 돌봄 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비중으로 제시함 (노란색: 약간 힘들, 보라색: 매우 힘들).
- \* 선(line)은 각 돌봄 활동 수행의 빈도를 평균값으로 제시함 (1: 하지 않음, 2: 월 1~2회, 3: 주 1~2회, 4: 주 3회 이상, 5: 하루 한번, 6: 하루 여러 번).

이 내용은 Care Work and the Economy Project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도에 수행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아동 돌봄 가족조사의 경우 만 10세 미만 자녀를 최대 3명까지 둔 엄마가 설문 참여했으며(N=500), 노인 돌봄 가족조사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로서 돌보고 있는 경우를 응답자로 설정함(N=501). 자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참조: [CWE-GAM Working Paper Series: 21-02: Kang et al \(2021\). Care Arrangement and Activities in South Korea: An Analysis of the 2018 Care Work Family Survey on Childcare and Eldercare](#)